

大都市 開業獸醫師의 實際

조 준 행

청운가축병원

춥고 추운 겨울이 가면 멀지 않아 봄이 온다는데 우리도 다시 돌아 오는 봄에 希望을 걸어 보아야겠다.

이제 家畜病院의 數도 늘어 全國에 1,300個所로서 全國坊坊曲曲에 散在되어 있는 規模는 어떤 면에서 보나 無視할 수 없는 莫強한 組織體가 되었다.

옛날에는 獸醫師하면 말이라는 動物을 連想할만큼 말이 主對象이었다. 그 時代의 乘馬는 社會의 指導階級인 權勢가 當당한 사람들만이 愛用했기에 따라서 獸醫師도 좋은 대우도 받았었고 또 戰時에는 獸醫官으로서 騎馬隊長이나 或은 副聯隊長 등 軍隊의 要職을 지낼수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말이라는 動物이 戰爭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重要的 存在로서 戰場의 모든 機動力을 左右하는 實質的인 力量을 發揮할 때이고 以後 第二次大戰 終末에 가서는 優秀한 各種動力이 高度로 發達되어 말에 對한 利用度가 차츰 줄어들어 부득이 獸醫師들은 國民食生活의 高單位蛋白質供給을 爲한 肉質開發에 參與하게 되어 主로 肉牛, 養豚 등, 養畜事業 등 家畜의 衛生, 疾病管理에 공헌한바 컸다고 본다.

집진적인 國民所得의 增大와 生活向上은 乳加工品과 純毛系의 消費를 增大시켜서 乳牛, 緬羊 등이 새로이 登場하기에 이르렀고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濃厚飼料로 飼育되는 家畜中 돼지, 닭의 數를 政策的으로 大幅制限하는 대신 草食을 主로 하는 소나 토끼의 飼育을 다시 獎勵하여 合理的인 國民保健을 爲한 새로운 食單을 再次 算出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現國內事情으로, 肉類와 資金의 回收가 빠른 닭의 飼育은 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故로 우리 4,000餘 獸醫師도 國家의 政策에 따라서 學校나 農水産部 或은 各畜産團體 그리고 一線에서 開業하고 있는 獸醫師도 그간 對象하던 家畜의 種類에 많은 變革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以外에도 이러한 家畜病院의 對象家畜에 相關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小動物이 있으니 이것은 都市開業獸醫師들이 主된 對象으로 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와 飼育增加이다.

物質文明이 發達하고 自由民主主義가 高度로 發達된 富裕한 國家일수록 그나라의 國民은 많은 數의 愛玩動物을 飼育하고 있으며 이 大部分의 愛玩動物은 主로 小動物로 개, 고양이, 새, 붕어 등이며 以外에도 뱀, 도마뱀, 원숭이, 너구리, 여우, 토끼, 거북이, 다람쥐 등 수많은 珍奇한 動物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動物을 사랑하고 잘 飼育한다는 것은 우리 人間의 精神教育上 情緒生活에도 매우 有益한 일이다.

이 많은 小動物中 가장 많이 飼育되고 있는 動物은 當然 犬種을 指摘하게 된다. 개는 元來 여우와 너구리의 近緣性을 갖인 野生動物이었다.

개가 사람에게 馴馳되기까지는 많은 歲月이 必要했을 것이다. 그後 品種이 改良되면서 愛玩動物中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개는 警戒心이 強하고 잘 쫓기 때문에 番犬으로도 널리 飼育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르는 개의 血統을 말하고 그 族譜를 따지면서까지 主人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가 主人을 잘 따르고 잘 알아보는 영리한 動物이기에 더 귀여움을 받는 것 같다. 無條件 主人을 따르는 강아지의 服從心에는 아무리 亂暴한 사나이라도 가슴 깊이 호뭇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愛犬의 飼育에도 世界的인 不況의 餘波가 닥쳐 왔으니 1975年 5月 27日 農水産部에서는 國民食糧消費節約의 한 方便으로 개의 飼育抑制指針까지 各市道에 下達하였는데 이 內容에는 每年 늘어나는 畜犬으로 말미암아 消費되는 穀物量과 放犬의 排池物로 인한 公害 그리고 人畜共通傳染病인 狂犬病의 發生을 防止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必要치 않은 畜犬의 飼育과 앞으로 一般家庭은 勿論 專門的으로 개를 飼育하는 犬商에 飼育頭數를 自體調節토록 하고 더욱 세퍼드나 도사견 등 大型犬을 小型犬으로 바꾸며 專業飼育者는 다른 業種으로 職業을 轉換하도록 권장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雪上加霜 犬公의 受難은 닥쳐 왔으니 이는 무서운 狂犬病의 發生이다. WHO는 最近 全世界

界 모든 나라에 狂犬病警報를 示達 이 病이 發生하는 때로 WHO에 報告토록 했다.

WHO의 最近發表에 따르면 1973年 한 해 동안 全世界의 100萬名以上の 사람이 狂犬病에 걸린 것으로 추측되는 動物에 물려서 治療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約 430名이 南美, 아시아, 特히 브라질과 印度等地에서 死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들은 小動物을 對象으로 하는 都市開業獸醫師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주게 된다. 더욱 1975年 5月 27日 農水産部令 畜犬飼育頭數의 大幅的인 減少 그리고 市中物價上昇과 各種公共料金引上으로부터 오는 國民의 精神的, 經濟的 壓迫은 더욱 甚해져서 都市의 小動物病院의 院長님들은 收入의 大幅的인 減少에 따라 病院運營難으로 生計維持에 그 어느 때보다도 極甚한 苦衷을 격게 된 것 같다.

이제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는 것은 獸醫師의 社會的地位와 技術者 대우로 定해진 報酬가 매우 낮고 회피하여 또 他職業에 轉職하기가 難感함을 알게 된다.

現開業獸醫師中에는 이 狀態로는 더 이상 出血的인 缺損을 보면서 開業을 維持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 앞으로 어떤 樂觀的인 希望도 가질수가 없어서 다른 職業을 求하나 이것 亦是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런 事實은 小動物을 主畜으로 하는 開業獸醫師면 누구나가 느끼고 神經을 쓰고 있는 事實이다.

이 中에는 生存을 爲한 天職으로 삼던 情들인 病院을 他目的의 店舖로貸與하겠다는 廣告를 내걸게 된 心難한 病院長의 착잡한 心情은 우리 모두가 本人만큼 實感할 수가 있을런지?

우리 都市開業獸醫師들은 1~2年程度의 不況으로 天職으로 생각하였던 病院의 門을 닫는 落伍者가 되지 않기 爲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努力과 手품을 아끼지 말 것이며 이래도 정 안 될 때는 臨時變通으로 自己能力과 趣味에 맞는 副職을 速히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方法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낚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이

낚시하기를 좋아하고 또 낚시하기를 원한다고 꼭 낚시터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낚시를 간다고 우리가 원하는 大魚나 많은 고기를 언제나 잡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낚시를 갈 때는 철저한 장비와 치밀한 계획하에 行動한다. 낚시란 社會生活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졌고 좋은 터를 차지했어도 그 當時의 바람의 強弱, 부는 方向, 氣溫의 高低, 미끼의 選擇, 낚시하는 時間, 물의 混濁程度, 낚시터의 特稱 등 複合的인 要因으로 그날의 收獲이 決定된다.

이것은 우리 不完全한 人間이 願하는 고기를 잡을수 있는 姿勢를 갖춘 다음 最終決定을 全知全能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는 낚시의 教訓이기도 하다.

이런 지극히 簡單한 生活形式을 항상 머리에 새겨서 長久한 앞날을 바라 봐야겠다.

다시 생각하여 보니 우리는 너무나 自身の 職業을 同等히 하였고 그 事業에 對해서 資本의 投資를 너무 소홀히 하였던 것을 反省하게 된다.

筆者의 小見으로는 멀지 않은 將來에 臨床獸醫師의 人氣는 반드시 上昇할 것이니 우리는 당장의 不況에 한숨만 쉬지 말고 智者가 機會를 만나 行動하듯 이 不況을 長期的인 放學으로 치고 그 동안 未備된 裝具를 再整備하고 알고 싶었던 것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부지런히 하여 몸과 마음의 참다운 實力을 길러두었다가 언젠가 돌아오는 景氣에 充分히 活用할 수 있는 힘의 底力을 잘 保存하는 것이 좋겠다. 至誠이면 感天이란 말을 되새기며 먼 將來를 爲하여 절약, 근검, 참고 견디는 마음의 姿勢가 切實히 要求되는 것 같다.

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獸醫師의 價値觀은 經濟的인 家畜이 定해 주는 것이 아니라 金錢으로 換算할 수 없는 高貴한 生命에 左右된다는 것을 항상 念頭에 두고 80年代의 GNP 1,000弗일 때를 바라보고 새로운 覺悟로 우리 모두 함께 精進합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3-1, 73-9583)